

예배 전에

추석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앞서가신 분이 남겨놓은 신앙적 유산과 교훈을 기억하고,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며, 내세의 소망을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이드영상이 필요하신 가정은 QR코드를 통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pusanskc.com>



기도

하나님, 온 식구를 한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 가정을 지켜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 가정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주님
안에서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저희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에베소서 6:1-4

-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 3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 4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

“순종과 사랑”

추석은 우리에게 단순한 휴일 그 이상입니다.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듯이, 한 해 동안의 수확을 감사드리며 조상에게 예를 표하고,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특별한 명절에 우리는 가족 간의 사랑과 존경을 확인하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추석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한 해 동안의 풍요와 평안을 감사드리며 조상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이와 같은 전통은 우리에게 가정의 중요성과 가족 간의 유대감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공경은 단순히 예의나 도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축복의 약속이 따릅니다.

이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통로가 됨을 의미합니다. 추석의 전통적
의미와 함께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요한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단지 뒷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예배순서

예배의 부름 인도자

찬 송 563장

기도 말은이

성경봉독 에베소서 6:1-4

말 씀 순종과 사랑

기도 인도자

찬 송 559장

묵상기도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예배의 부름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와
축복으로 우리의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장선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이는 가정의 화평과 번영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형식적이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존경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석은 가족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가정 내에서의 사랑과 존경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부모들에게도 중요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4절에서 "아비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이 아닌, 사랑과 인내로 그들을 지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추석의 전통적 의미 속에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 지도가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 우리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더욱 축복하시고, 이 명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석의 전통적인 의미를 존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설교후 기도

하나님, 올 한해도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오늘 이후의 날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막힌 문이 열리고, 답답한 상황이 역전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가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성취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하기

다함께 잠시 묵상하면서 앞서가신 어른들께서 남겨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